

'스텔스 오미크론' 덮친 광주·전남... 일주일이 최대 고비

사흘째 2만명대 확진... 전국, 첫 40만명대 위중증 1244명 최대 방역당국, 다음주 유행 정점 "코로나 마지막 위기 될 것" 주의 당부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이 코로나19 유행의 최대 정점이 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고 발열이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40만741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넘어섰으며, 위중증 환자도 1244명으로 최다치를 기록했다.

손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은 이제 정점을 향해 확진자 발생이 최대치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정도가 이번 유행의 정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수의 연구기관 분석을 종합해 유행 정점이 16~22일 형성되고, 정점에서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31만6000~37만2000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넘었지만, 최근 1주일 평균으로는 34만 5242명이다.

손 반장은 최근 국내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 수가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오미크론 정점 시기 수치보다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사망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망자 기준으로 한국의 사망자는 주요 국가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굉장히 어려운 주간이 시작되고 있지만, 예측대로 1주 정도 내외에 정점을 형성한다면 그 이후로는 훨씬 안정적인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가장

큰 위기로서 이번 유행의 정점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특별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속도가 가장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이 덮친 광주·전남은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만명을 넘어서면서, 이미 최정점에 돌입했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광주 1만2114명, 전남 9181명 등 2만1295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광주·전남 하루 확진자는 지난 14일(2만2627명)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선 뒤 15일에는 2만 7691명까지 치솟았다.

이날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62명이 한꺼번에 확진되는 등 병원, 요양 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랐다.

전남도 목포 1747명, 순천 1650명, 여수 1045명, 나주 651명, 광양 569명 등 시 단위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밖에는 무안 562명, 해남 347명, 고흥 298명, 영광 280명, 영암 256명 등을 기록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16일 오후 광주시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진단키트 구매비 10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중증장애인·임신부 등 11만여명

광주시가 어린이와 중증장애인, 임신부 등에게 자가 진단 키트 무상 지급을 약속했으나, 정부 통제로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진단키트 구입비용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제16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취약 전 아동 등 11만여명에게 키트 구매 등 방역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 요양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재가 장기요양 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6만 9000여명에게도 10만원씩 지급한다.

광주시는 중증 장애인, 임신부, 12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무상으로 키트 25개씩 제공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물량 공급 통제 탓에 무산됐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이자, 담보, 보증료가 없는 이륜차 3주 해택 긴급 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2020년 3월 이후 4번째로 광주시는 지난 3차례 동안 각각 155억원, 17억원, 34억원의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했다.

광주시는 올해 초 시민에게 지급한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시민을 위해 신청 기간도 연장했다. 지금까지 광주 시민 96.3%인 141만 4694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15차례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263만 8186명(누적 포함) 시민·업체 등에 4448억원을 지원했고, 특별보증 금액까지 합하면 지원 금액은 1조 1000억원에 달한다"며 "광주에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만명, 종사자까지 더하면 30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고통은 광주 전체의 고통이기도 해 소상공인 등 지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문화예술인에 전국 첫 상해보험 지원 상해사망시 3000만원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문화예술인 특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 문화예술인 전원이 상해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가입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 자정까지 1년, 대상은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에 예술 활동 증명 등록을 마친 만 16세 이상 광주시민이다.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3000여명 지역 예술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보장 내용은 상해 사망 3000만원, 상해 후유장애 최대 3000만원, 수술비 35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200만원, 골절 진단·골절 수술·화상 진단·화상 수술비 30만원, 뱀소니·무보형 차 상해 사망·후유장애 1000만원, 성폭력 범죄 상해 1000만원 등 모두 15개 항목이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광주문화예술인 상해보험 접수 콜센터'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합금을 받을 수 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北, ICBM 시험발사...대선 이후 첫 무력시위

20km미만 고도서 폭발해 실패...군, 추가도발 대비 준비태세

북한이 16일 신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쏘지만, 발사 직후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10면>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무력시위이자 올해만 10번째 도발로, 북한은 폭발 원인 분석에 주력하기보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또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지만, 고도가 20km에도 이르지 못한 초기에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 장소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신행 ICBM '화성-17형'의 성능시험을 했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로 탐지됐다.

미사일이 워낙 초기에 폭발해 구체적인 제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군은 발사 장소 등으로 미뤄 이번에도 신행 ICB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두 차례처럼 정찰위성 개발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려 '화성-17형'을 발사했을 수도 있

지만, 이번엔 실거리 사격을 목표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성-17형은 탄두부 형상이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형태로 진화하고, 목표 최대 사거리도 기존 화성-15형의 1만3000km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 5일 동해상으로 ICBM 성능시험을 위한 발사를 한 지 11일 만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때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각종 미사일들을 동원한 합동타격훈련 태세를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시험발사하자 곧바로 '현무-2' 탄도미사일 등을 동원해 합동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언제라도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서인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코로나 감염병등급 조정 논의...4급 분류시 전수조사 안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0.05~0.1%)으로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격리와 치료비 지원 수준 등이 바뀌게 된다. 만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

병'으로 분류된다면, 지급처럼 모든 확진자를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표본조사만 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런 전수조사 없이 유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본조사'만 하게 된다.

/연합뉴스

임야 3천평이상 삽니다
지분환영. 010-8902-7900

금매·교환
하실분. 010-3605-5000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제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대지매매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2,816㎡, 852평

85억

010-6432-5070

분할합병공고
(재건축 이익 및 주권재출공고)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이하 "갑"이라 한다)과 대명건설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3월 03일 각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9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2년 3월 17일

"갑" 주식회사 대원엔지니어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해안로 22-5, 에이동 1층 (10호실)
대표이사 고영수

"을" 대명건설 주식회사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2길 49-20 대표이사 조민규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김동섭(740915-XXXXXX)
· 최후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송정로 80, 104동 203호 (송정동, 온세케이이조용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동섭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2년 2월 22일 221호로 신청하여 2022년 3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3월 17일

· 상속인: 1. 김정은(820610-XXXXXX)
2. 김준서(090707-XXXXXX)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도 김정은 청구인들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송정로 80, 104동 203호 (송정동, 온세케이이조용아파트)

· 신고기간: 2022. 3. 17 ~ 2022. 5. 27.
· 채권신고장소: 상속인 1. 김정은의 주소

제1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권리와 이익의 향유를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43조와 정관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816 동탄시범단지 2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경영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3기(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요건
2) 제12회 임원: 자본 감소의 건
3) 제13회 임원: 정관 변경의 건
4. 주주들의 참석 시 준비사항
가. 회계장부: 신용평가등급, 증권명세서, 연금 증명서 나. 대리인명: 위임장(주주명,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해 소유주식 수, 기해 인원번호, 주주명, 인원번호, 대리인의 신분증) * 당사는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으며, 영자재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3월 17일

아이오메트론 주식회사
공통대표이사 이광민, 조연 (대안이사)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이상영 (580824-1)은 2021년 12월 16일 사망. 광주 북구 대저로 27-1(운암동)의 법정상속인 인천식, 인예슬은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광주가 정법원 2022년 2월 22일 221호로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고 2022년 3월 16일자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제약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한정승속인: 인천식, 인예슬
채권신고장소: 나주시 그린로 153, 104동 1604호 (빛가람동, 대광로제비암)

산행안내

3월20일(일)

▲광주서산악회 3월20일(일) 원주"소금산"간편행"산행&출렁다리전도길"트레킹 *업주채육권 05:00, 동아병원05:05, 롯데백화점05:10, 광주역05:15, 문에후문05:25, 네원주차장05:30 * 다음카페 광주 서산악회 ☎ 010 7794 6920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70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先州日報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